

영암군, 전기저상버스 도입... 친환경 대중교통 실현

내달부터 영암~목포 101번 2대 하루 28회 운영 군서·삼호면 등 휠체어 탑승장치... 교통편의 증대 소음·매연 적어 교통환경 개선

영암군이 전기저상버스 도입으로 친환경 대중교통 실현에 나섰다. 12월부터 영암-목포 101번 노선에 2대를 도입·운영해 20대까지 운영을 늘릴 방침이다.

26일 영암군에 따르면 12월부터 친환경 전기저상버스 2대 운영을 시행한다.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 향상, 환경 보호 등을 위해 전기저상버스를 도입한 것은

영암에서는 이번이 첫 사례다.

전기저상버스는 영암-목포를 오가는 101번 노선에 투입돼 하루 28회 운영되고 주요 경유지는 군서면, 삼호면 등이다.

도입된 버스는 저상 구조에 휠체어 탑승장치가 장착돼 있어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편의를 크게 높여 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소음과 매연이 적어 지역 교통환경도 개선하고 전기 충전 방식이어서 화석연료보다 연료비도

절감 효과도 높아 무료 버스를 운영하는 영암군의 재정부담도 줄여줄 것으로 여겨진다.

영암군은 본격 운영을 앞둔 이달 19일 시승식을 열고 다양한 문제점을 점검하는 시간도 가졌다.

영암군은 이번 2대 도입을 시작으로 매년 1~2대 씩을 추가해 20대의 전기저상 버스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버스 전용 충전시설 확충, 도로 구조 개선 등에도 나서 전기저상버스 운영 인프라도 꾸준히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부르면 달려가는 '콜버스',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누구나 무료 버스'로 이어온 대중교통 혁신을 전기저상버스로 이어나가겠다. 영암버스의 주인은 영암군민이고, 모두가 편하고, 환경과 재정 부담을 줄이는 전기저상버스를 아끼면서 많이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한교진 기자



신안군, 지도읍 옛 사진전 내년 4월30일까지 전시

신안군은 내년 4월 30일까지 신안 옛 갈타운 내 상가에서 지도 옛 사진전을 연다고 26일 밝혔다. (사진)

이번 사진전은 주민들의 도움으로 모은 옛사진 430점의 중 보존 상태가 좋고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사진 30점을 전시한다. 1909년에 개교한 지도공립보통학교, 해제-지도간 연륙교 공사, 지도향교 석전제 등 역사의 한 장면을 담았다.

지도는 섬에서 섬을 다스리라는 고종의 명에 의해 1896년에 문을 연 지도군의 소재지였다.

지도군은 북쪽으로 군산 선유도부터 남쪽으로 진도의 섬까지 광활한 지역을 다스리다 18년이라는 짧은 시간 존재하다 암울했던 일제강점기에 사라졌다.

신안군의 유일한 향교, 전통시장 등이 현 지도읍에 위치하며 이들은 주민의 자랑거리이자 추억거리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사라져가는 옛 모습을 고화질로 복원하고 전시함으로써 역사 자료,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겠다"며 "옛 사진 모으기 캠페인에 지속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신안=홍일갑 기자

무안군, 유기질비료 신청 내달 10일까지 읍·면사무소

무안군은 오는 12월 10일까지 2025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경작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받겠다고 26일 밝혔다.

지원하는 비료는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과 부속 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퇴비)이다. 지원액은 20kg 한 포 기준 유기질비료는 1600원이며 부속유기질비료는 등급별로 차등지원(특등급 1600원·1등급 1500원·2등급 1300원)한다.

신청인은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필지에만 유기질비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비료를 공급받을 때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해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신청서는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구역이 무안군이고 읍·면만 다를 경우에는 경지면적이 가장 많은 읍·면에, 다른 시군 농지일 경우에는 해당 시군에 제출해야 한다.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해당 농업인이 작성한 신청서를 마을 이장, 공급희망농협, 작목반장, 우편, 팩스 등을 통해서도 전달할 수 있다.

함경중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가에서 유기질비료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해서 혜택받기를 바라며 유기질비료 지원이 확정된 이후 그해 9월 말까지 공급받지 않은 물량은 포기물량으로 간주돼 신청농가는 지체없이 수령하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무안=김행언 기자

무안군 무안읍 새마을부녀회, 자원재활용 실천 헌 옷 모으기

무안군 무안읍 새마을부녀회(회장 양복순)가 지난 20일 무안읍사무소 주차장에서 자연보호와 자원 재활용 실천을 위한 헌 옷 수거 활동을 펼쳤다.

26일 무안군에 따르면 이날 행사는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자원의 순환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새마을부녀회와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진행됐다. 수거된 헌 옷은 재활용을 통해 소외계층을 돕거나 환경 개선 활동에 활용할 예정이다.

무안읍 새마을부녀회는 매년 헌 옷 수거 운동을 지속해서 추진해오며 자원 재활용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다.

양복순 새마을부녀회장은 "작은 실천이지만 환경을 지키고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는 의미 있는 활동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자연보호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무안=김행언 기자



지난 20일 무안군 새마을부녀회원들이 무안읍사무소 주차장에서 자원재활용 실천을 위해 수거된 헌 옷을 트럭에 옮기고 있다.

무안군 새마을부녀회 제공

해남군, 수험생 무료 스케일링 구강보건센터서 연말까지 제공

해남군이 2025학년도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12월 한 달 동안 무료 치아 스케일링(치석 제거) 서비스를 제공한다.

26일 해남군에 따르면 대상자는 2025학년도 수험생으로 주소지가 해남군으로 되어 있거나 타지역 주소지라도 관내 고등학교에 재학(졸업) 중인 학생이다.

구강보건센터에서 무료 스케일링과 함께 구강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구강 위생 용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해남군 보건소 구강보건센터(061-531-3725)로 사전 전화 예약 후 수험표와 신분증(학생증)을 지참해 해남군 보건소 구강보건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스케일링은 치아에 형성된 치면세균막이나 치석을 제거하는 과정으로 청소년들의 치주질환을 예방하고, 치아우식증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구강질환 예방법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수험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기획했다"며 "깨끗한 치아로 자신감을 가지고 면접이나 대학 생활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해남=전연수 기자

무안군,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자 모집

내달 3일부터 3000명

무안군은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를 전년 대비 260명 늘어난 3000명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업별로는 △노인공익활동사업 2403명 △노인역량활동사업 330명 △공동체사업단 167명 △취업지원(취업알선형)사업 100명이다.

노인공익활동 사업은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일자리로 65세 이상 기초연금, 지역연금수급 저소득 노인이 대상이며 월 29만원(월 30시간 활동)의 활동비를 지원한다.

노인역량활동 사업은 노인들의 숙련된 기술, 전문성, 경험 등을 활용한 일자리

로 65세 이상(일부 60세 이상)이 대상이며 월 76만원(월 60시간 근무, 주휴수당 포함)의 활동비를 지원한다.

공동체 사업단은 노인에 의한 상품·판매, 서비스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자리로 60세 이상이 대상이며 근무기간 및 시간, 급여는 근로계약에 따라 다르다.

취업지원(취업알선형) 사업은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 관련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받는 일자리로 60세 이상이 대상이며 근무기간 및 시간, 급여는 근로계약에 따라 다르다.

노인공익활동사업 신청기간은 12월 3일부터 9일까지 읍·면사무소, 신도시지원단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노인역량활동사업, 공동체사업단, 취

업지원(취업알선형)사업은 12월 9일부터 13일까지 수행기관별로 참여자 접수 및 선발한다.

선발기준은 소득인정액, 활동역량, 세대구성 등 유형에 따라 고득점자순이며 생계급여 수급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장기요양보험등급판정자, 타부처 일자리사업 2개 이상 참여자, 국내 거주자 중 외국민인 자는 선발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무안군 누리집(고시공고)을 참고하거나 무안군 주민생활과(061-450-5526) 또는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산 군수는 "어르신들의 소득 보장과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노인일자리사업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행언 기자



@jinilbo
진일보 인스타그램

진일보는 전남일보가 제공하는 뉴스서비스입니다. 한발 빠르게 정확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를 바랍니다.



Kakao Talk : 진일보
E-Mail : jebo@jinilbo.com